

발로 뛰어가며 합격한 원산지관리사

서학원 원산지관리사 최고령 합격자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무역분야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시 수출입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종족여부확인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및 중장년층 등으로 시험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호에서는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중 최고령자인 서학원(1947년생)씨, 최연소 합격자인 신아형(1995년생)씨로부터 원산지관리사 합격수기를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지관리사 서학원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1972년부터 대기업에서만 해외 Sales, 해외근무 및 관련 수출입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정년 후 지금은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FTA 업무를 포함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FTA라는 단어는 2000년대 초까지는 다소는 생소했던 것으로, 대기업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던 당시 뜻밖에도 FTA 관련된 요청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무척 당황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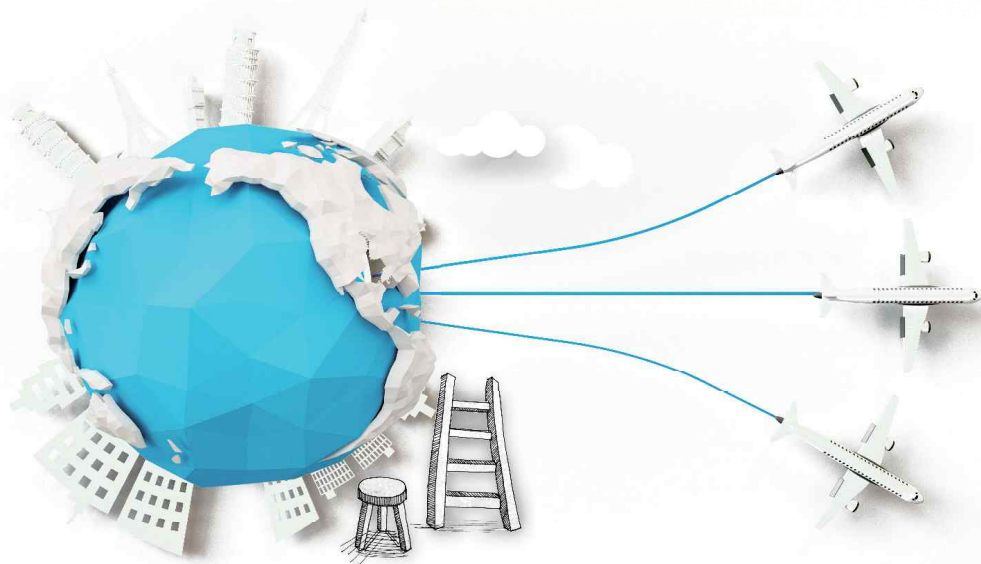
10여년 전 중소기업에선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사내엔 무역은 물론 FTA업무를 아는 사람이 전무했습니다. 수십년을, 그것도 대기업에서 해외근무도 하며 무역을 했다는 사람이 무역업 무인 FTA를 모른다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저희 세대 무역에선 지금 개념의 FTA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무역기관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등)에서 무료 FTA 세미나 교육을 무차별로 쫓아다니며 배웠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세미나 강사분들께 직접 묻고, 그분들과 친분을 쌓아 e-mail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보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FTA 관리업무(원산지관리업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시행하던 필수교육 (3일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으나 오랜 무역업무 경험으로 수출입에 대한 개념이 도움이 되어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후 원산지관리사 시험이 국가공인으로 변경되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을 통해 FTA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산지관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얼마간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사족을 하나 달면, 저는 무역협회에서 시행한 "국제무역사 시험" 에서도 최고령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출입으로 먹고 살아야하는 숙명을 타고난 대한민국에선 FTA 관련업무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역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장년층 여러분들, 늦다 생각치 마시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에 꼭 도전해보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FTA 전문인력이 될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다

신아형 원산지관리사 최연소 합격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업에 꿈이 있는 대학생 신아형입니다. 원산지 관리자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무역에 대해 배우는 이론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선배님과 교수님이 본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제화 시대에서 FTA에 대한 지식은 큰 메리트이고 원산지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취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원산지관리사가 되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것은 3학년 여름방학입니다. 나중엔 학교와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각종 과제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향후 FTA 전문인력이 될 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제 공부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강의를 들으며 과목별 정리노트를 만든 것 입니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과목은 X, Y좌표를 만들어 가로축엔 분야별 특례, 세로축엔 협정을 쭉 써가며 외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나오는 계산문제는 특히 주의깊게 계산방법과 수치를 공부했습니다. 또한, 4과목 중 가장 생소한 과목인 품목분류실무는 암기가 쉽지 않아 눈에 익숙해지게끔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학교와 집을 이동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틈틈이 자주 보면서 익숙하지 않던 용어들을 익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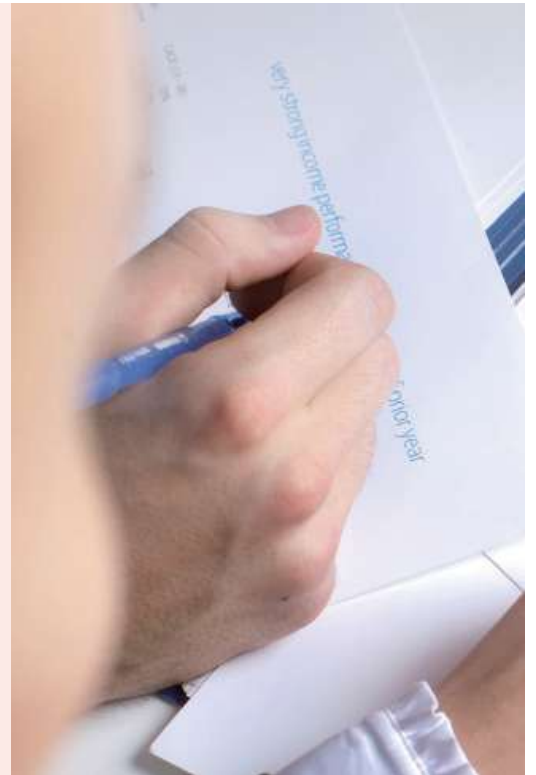
저는 최연소 합격자이긴 하지만,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할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시험합격 역시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자 시험을 통해 몰랐던 품목이름도 알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게 되어 좋았습니다.

합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원산지 관리자 취득 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원산지 관리자 자격증으로 인해 조금 더 제 꿈을 이루는데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실무에 나가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며 저의 꿈을 실현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각과목들의 연결고리를 정리하여 합격하다

호성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국제원산지정보원 서울 FTA 이행지원팀 호성훈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중국학,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막연히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학과생을 위한 자격증 교육 지원으로 국제무역사를 취득하게 되면서 더욱 더 무역과 연관된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역사 취득을 계기로 무역영어1급, 물류관리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무역학과 계열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언가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시기에 ‘원산지관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FTA’라는 용어만 들어봤을 뿐 실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듣다 보니 과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3일 과정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육 수료 후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은 ‘미리 교재를 구매하여 읽어 보기만 했더라도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였습니다.

강사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준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저 빨간펜으로 표시만 할 뿐 외워지거나 이해할 수 없던 내용들이 혼자 정리를 하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부터 학교 공부든 자격증 공부든 이해도 되지 않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정독하면서 공부 하게 되면 흥미를 잃게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는 교재를 대충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읽어본 후 최신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과 시험문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FTA협정 및 법령을 기초로 어떠한 원산지 결정기준들이 있고, 그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기 위하여 물품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품목 분류, 그리고 물품이 수출입 될 때 활용되는 수출입통관 과목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흐름을 정리하고 외우면서 준비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조차 외우지 않고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과목을 그저 읽고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목들이 연계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저 자격증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FTA의 기본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이행지원팀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익힌 FTA 전문지식을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FTA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각자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여 합격하시고 FTA 전문가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